

집편 회학어선조

회학어선

第三卷 第八號 (十月號)

叻七錢

昭和十九年四月十一日(第三卷第八號)

차 목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날을 앞두고	최	경	남	(1)
한글을 퍼치자	한글을 퍼치자	김	영	경	(1)
訓民正音에 나타난 綴字法 規定	訓民正音에 나타난 綴字法 規定	김	영	경	(2)
老乞大 解題	老乞大 解題	方	鍾	鉉	(6)
方言調査	方言調査	金	龍	雲	(8)
우리의 文化를 빛내자	우리의 文化를 빛내자	申	瑛	澈	(10)
朝鮮語讀本 卷二 指導例	朝鮮語讀本 卷二 指導例	沈	宜	麟	(12)
朝鮮語讀本 語彙 調査 (6)	朝鮮語讀本 語彙 調査 (6)	李	浩	盛	(16)
만물초	만물초	楊	蓬	萊	(19)
文學과 文士와 文章 (四)	文學과 文士와 文章 (四)	李	光	洙	(21)
朝鮮歷史 講話 (六)	朝鮮歷史 講話 (六)				(24)
로빈슨 무인절도 표류기 (六)	로빈슨 무인절도 표류기 (六)				(27)

朝鮮語學會 規則

第一條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稱함

第二條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

을 目的함

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

하여 左記 部署를 設

經理部

庶務部

會計部

出版部

圖書部

第四條 本會는 京城에 設

但 地方에는 支會를 設기도 함

第五條 本會의 入會는 本會 會員의 推

薦으로 幹事가 審査한 後에 許諾함

但 入會를 許諾한 時에는 入會金 壹

圓을 내어야 함

第六條 本會 會員은 每年 會費 貳圓을

負擔함

第七條 本會 會員으로서 一年동안 한번

도 모임에 出席이 없고 會費를 내지

아니한이는 別會員으로 編入함

但 退會를 願하는이는 幹事長에게 退

會를 請하여야 함

第八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

이는 本會의 贊成員으로 함

第九條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長 一

人과 各部 幹事 一人씩을 設

一、幹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各部를

統轄함

二、經理部 幹事는 本會의 經營에 專

力함

三、庶務部 幹事는 本會의 通信、記錄、

其他 다른 部에 屬하지 아니한 事

務를 맡음

四、會計部 幹事는 本會의 會計事務를

맡음

五、出版部 幹事는 本會의 出版事務를

맡음

六、圖書部 幹事는 本會의 文庫事務를

맡음 幹事長과 幹事는 總會에서 選舉함。

必要를 따라 部員 若干人을 設 時

에는 幹事會에서 選定함

第十條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本會員 三分之一 以上の 出席이

라야 함

但 定員에 達하지 못할 時는 在京會

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함을

得함

第十一條 必要한 時에는 臨時總會를 設

기로 함

第十二條 本會는 每月 한번씩(들재 土

曜日) 月例會를 열음

第十三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함

一、講演會

二、講習會

三、講義錄、學報、研究叢書、調查報告

書、關係 古文獻、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第十四條 本會則을 고쳐야 할 時에는 總

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第十五條 本規則에 未備한것은 幹事會 또

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한 글 날 을 앞 두 고

이달 이십팔일은 우리 세종
 대왕께옵서 한글을 반포하신
 제사백 팔십 구회의 기념날입
 니다. 동시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공포한
 이주년인 기념날입니다. 과거
 반세기간이나 깊이 묻어두었
 던것을 이제야 파내었으며, 또
 우리의 손으로 닦고 다듬어서
 새 광채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이 두가지의
 의미로 보아 크게 기념할 명
 절임을 잊지 맙시다.

한글을 퍼치자

—한글날을 맞으면서—

청주 최 창 남

- 一、우리도 기를 펴고 살아보세나
 이것은 절로 나는 조선말이요,
 낫 놓고 기역자 그런것은
 배우기 아주 쉬운 한글입니다.
- ... 피 품는 조선의 청년 학도여
 후 눈을 들어 삼천리 강산을 보라
 렴 글 모르는 장님이 몇 백만인가
 ... 품는 피 바치어 가르칩니다.
- 二、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이 말은
 우리의 목숨인 조선말이요
 천하에 장한 글 가나다라는
 우리의 보배인 한글입니다.
- 三、끝없이 이어갈 우리의 목숨
 이리저리 통하야 용솟음치고,
 억만대 흘러가는 빛나는 보배
 끝없이 퍼치며 보칩니다.

訓民正音에 나타난

綴字法規定

金允經



6818051

은 우리글 訓民正音이 發布된지 四百八十 九週年되는 紀念日입니다。이 날을 紀念하는 뜻으로 訓民正音에 나타난 綴字法의 規定을 좀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제 그 全文은 여기에 다 들어 보이기 어렵기에, 그 첫머리에 실린 御製序文만 들어 보이고, 거기에 숨어 있는 綴字法規定을 紹介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便宜上 長短音의 符號(四聲區別標)만은 없이 하였습니다。 『나랏말싸미 中 國語에 달아 文 字 子 音과 로 서 르 스 못 디 아니홀씨 이런 권초로 어린 백의 姓성이 니르고 귀훈배이셔도 모릅내 케브들 시려 피디 모훈노미 하나라 내이를爲잉향야 어엿비너져 새로스들여 諺字 字 音을 諺 字 音과 노니 사름마 다히여 수빙니져 날로쓰매 便 安한 키호고 初 音은 르미니라』 이와 같이 쓰었습니다。 오늘날의 綴字法으로 고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의 말음이 중국과 달라, 그 文字와 서로 사무치지 아니할새, 이런 권차(연고)도 어린(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져 할바가 있어도 마침내 케 뜻을 실어 퍼지 못할 놀(자, 이)이 하(많)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배여져, 새로 스를 여덟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쉬(쉽게) 익혀 날로 쓰에 편안하게 하고 할 따름이니라』

本文에 分明히 規定하여 놓은 綴字法으로서는 첫째 『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바침은 첫소리(곧 당소리) 열 일곱자를 다시 쓴다 하였으니, 말에 發音되는 것이면 制限받을 것 없이 첫소리로 쓰는 것이면 다 쓸 수 있게 規定한 것입니다。

둘째는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이라 하여 『빙, 땡, 풍, 땡』들을 첫소리에 加入하였으니, 終聲(바침)에도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임은 勿論입니다。

셋째는 『初聲合用則並書』라 하여 첫소리(닿소리)를 들以上 合하여 쓸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나리 잇대어 쓰지 않고 가로 나란히 쓴다 함을 規定하였습니다。 가령 같은 첫소리를 合하여 쓰려면 『기, 디, 디, 비스스, 스스, 흥흥』과 같이 쓰지 아니하고 『기, 디, 비스스, 스스, 흥』같이 쓰며 다른 첫소리를 서로 合하여 쓸 境遇라도 마찬가지로 『르기, 르디, 르흥, 비스』과 같이 쓰지 아니하고 『리, 래, 르, 비』같이 쓰라 함이외다。

그 다음에 『終聲同』이라 함은 바침에 있어서도 첫소리로 쓸 때처럼 나리 잇대어 쓰지 아니하고 가도나란히 별이어 적는다 한 것입니다. 가령 『달』이라 적지 아니하고 『달』 같이 적으라 함이외다.

넷째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의 첫소리 밑에 붙여 적지 아니하고 첫소리 밑에 붙여 적는다 規定한것이니, 가령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같이 적지 아니하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같이 적으라 함이외다.

다섯째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의 첫소리의 밑에 붙여 적지 않고 그 옹음은 쪽에 붙여 적는다 規定한것이니, 가령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같이 적지 아니하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들 같이 적는다 함이외다.

여섯째는 『凡字必合而成音』이라 하여 이 初聲이나 中聲(홀소리)의 어는 하나만으로 소리를 적지 아니하고 그 두가지 혹은 終聲까지 세가지를 습하여 적는다 規定한것이니, 中聲(홀소리)은 歐洲文字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도 한 소리를 적을수 있으나, 漢字音의 初, 中, 終 三聲 區別法(가령 『阿』를 『ㄱ』라고만 적지 않고 『앙』라고 적는것과 같은)에 좇아서 반듯이 습하여 적는다 한것입니다.

일곱째는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

點同而促急』이라 하여 소리의 길고 짧음을 區別하는 法을 規定하였으나, 이것도 漢文의 四聲 區別法에 支配됨이요, 우리말에는 長短의 區別도 足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덟째는 『ㄱ : 並書如蚪字初發聲, 『ㄴ : 並書如覃字初發聲, 『ㄷ : 並書如步字初發聲, 『ㄹ : 並書如邪字初發聲, 『ㅇ : 並書如洪字初發聲』이라 함과 같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의 여섯 소리에 對한 並書音(된소리)을 規定하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의 소리를 만들어 쓰게 한것입니다. 이 音에 對하여 或者는 『된시옷이』라 하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같이 씀이 옳다고 하나, 이는 다만 近來 訛傳되어온 習慣을 너무 偏重함에 不 過한것이요, 歷史上으로는 音理上으로는 아무 根據가 없는 妄說입니다. 그러한데 本文中에 規定은 없으나 實 例로 나타난 『ㅅ』(用), 『ㅆ』(意), 『ㅈ』(耳), 『ㅊ』(書) 『ㅊ』(急) 같이 씀이 있는데, 이는 다만 된소리만을 表示하기 爲함이 아니고 그 말 『ㅅ』 『ㅆ』에서는 먼저 『ㅅ』 소리가 들어 나기때문에 『ㅆ』를 붙인것이고, 『ㅈ』, 『ㅊ』에서는 『ㅅ』 소리가 들어나기때문에 『ㅈ』, 『ㅊ』를 붙인것입니다. 이케 쓰는 말에서도 많은 實例를 더 찾을수가 있습니다. 가령 『쌀』(米) 『빠리』(杻), 『쪽』(側, 片), 『때』(時)들의 첫소리는 다만 되게만 나는 된소리가 아니요, 『ㅅ』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

소리를 되게 내는것이 分明합니다. 이는

『해발』(當年新出米)

『조밭』(粟米)

『대바리』(竹紐)

『이쪽』(此側、此方)

『키쪽』(彼側、彼方)

『이때』(此時)

『키때』(彼時、即 向者)

예저 『니』소리가 들어남을 볼수 있습니다. 『된시옷』을 붙인 된소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쓰인것이 지, 결코 單純한 된소리만을 적기 爲하여 쓴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에 이미 말한 ㄱ ㄷ ㅌ ㅍ ㅈ ㅊ 들의 된소리 적는 法을 規定하여 둔것을 보아 分明합니다. 여덟째는 本文에는 밝히 規定함이 없으나, 本文에 나타난 實例를 보아서 『中間音』에 對한 分명한 規定이 보입니다.

ㄱ...『洪響』(字正), 『乃』(終聲) (소리)

ㄷ...『君』(字正), 『吞』(字正)

ㅌ...『侵』(字正), 『覃』(字正)

ㅍ...『蚪』(字正), 『斗』(字正), 『漂』(字正)

ㅈ...『快』(字正), 『那』(字正), 『步』(字正), 『彌』(字正)

ㅊ...『慈』(字正), 『邪』(字正), 『虛』(字正)

『閏』(字正), 『閏』(字正)

△...『英主』(말피), 『龍飛御天歌』(이 實例는 龍飛御天歌

에서 찾아)

스...『性』(字), 『相』(字), 『錦』(字) (이 實例는 圓覺經

에서 찾아)

ㅅ...『입』(시옷) 소리, 『正』(齒) 소리, 『나』(라) 말소리

이와 같이 ㄱ, ㄷ, ㅌ, ㅍ, ㅈ, ㅊ, ㅅ, ㅈ, ㅊ 들로 中間

音을 表記하였읍니다. 여기에서 그 規則을 찾아 보건

대, 대개 우의 말의 끝소리와 同種類의 소리를 中間

音으로 쓰였다 하는것이 그것입니다. 牙音 ㅎ 밑에는

牙音 ㄱ, 舌音 ㄴ 밑에는 舌音 ㄷ, 唇音 ㅁ 밑에는

唇音 ㄴ, 唇輕音 ㄹ 밑에는 唇輕音 ㅂ, 喉音 ㅇ 밑

에는 喉音 ㅎ을 쓴것입니다. 그러하나 『△』, 『스』(訓

民正音에는 實例가 없어서 龍飛御天歌와 圓覺經에서 찾아

는것이지마는) 『스』만은 또 이 規則에 맞지 아니합

니다.

이 訓民正音式 綴字法은 中宗 二十二年에 난 訓

蒙字會 以前까지 쓰인것으로써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

曲, 法華經, 圓覺經, 金剛經, 楞嚴經들이 다 이와 같은

綴字法으로 出版된것입니다.

그 뒤 變遷까지 좀 쓰려고 뜻을 들었었으나, 되지

數도 넘어가게 되고 時間도 없어서 아직 이만 그치

려 합니다. (八月二十八日 于正後 한時)

延禧專門學校教授 崔鉉培 先生 著

【告 豫】

우리말본문

十月下旬發行

☐出版界의 破天荒! ☐堂堂 千餘頁 大著!

著者が 全生涯를 한글 연구에 바치었으며 十餘年 敎壇에서 實際 經驗을 쌓아 最後로 收穫한 것이 이 우리말본이다。 音聲論、品詞論、文章論等 무릇 文法 全體를 包括하여 詳明히 講義한 것으로、이렇듯 彪大한 千餘頁의 巨編은 實로 조선 말과 글이 있는 以後 初有한 記錄을 지었다。 今後 朝鮮 文法을 論하는자 此書를 두고 다시 말할자 없을 것이다。

啓禧序가 있으니, 이 책의 이름의 由來가 아래와 같음을 말하였다.

余嘗言、不可不大家釐正上可之、及庚辰銜命赴燕、遂以命賤臣焉、時譯士邊憲及至燕館、逐條改証、別其同異、務令適乎時便於俗、而古本亦不可削沒、故併錄之、蓋存羊之意也、書成、名之曰老乞大新釋、承上命也……

또 이 序文 끝에 쓰인 年代에 依하면 上之三十七年辛巳八月下濬이라고 하였으니, 即 英祖 三十七年(西紀 一七六一)이요 乳隆 二十六年이다(八月이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책 卷末에 檢察官 金昌祚 邊憲二人과 校正官 李天埴等 七人の 名을 列立하여 合四十 六張으로 끝났다.

다음으로 諺解에 關하여, 먼저 老乞大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와의 實例를 들어 比較하고자 한다.

我_어從_從崇_高高_강麗_麗리_리王_왕京_京京_京來_來來_來래

我_어從_從崇_朝朝_창鮮_鮮천_천王_왕京_京京_京來_來來_來래

(나 高麗王京으로 되브러오라)

(나 朝鮮人王京으로 초와와노라)

前者는 老乞大를 諺解한 것이니, 上下 二冊으로 되 六十四張、六十 六張으로 끝나고, 後者는 重刊老乞大를 諺解한 것이요, 老乞大諺解를 重刊한 것은 아니니, 上下 二

冊으로 上 六十五張、下 六十七張으로 完了되었다.

이 諺解에 關하여는 四聲通解에 諺音條가 있으니, 在左者、即通攷之取制之字、在右者、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

이와 같이 凡例를 두어 翻譯하게 한 것이다. 이중에 新釋老乞大諺解는 일즉 보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이 通文館志에 明記된 것을 引用하였는 이만큼 그 存在를 疑心할 수 없는 듯하므로 여기에 같이 들어 論한 것이다.

(十五頁에서繼續)

2、各字에 意味觀念을 가르치고, 語尾를 活用하여 읽는 練習.

3、應用文의 讀法 練習.

第七時:(總括的 取扱)

1、各字의 意味觀念 問答.

2、新終聲文字의 書取 練習.

注意 이 表는 大略의 概念的 取扱을 할 것이오. 全

部를 徹底시킴은 아니다. 말아치 語法的 理論을 알리

는 것이 아니오, 各字를 보고 意味觀念을 알며, 그 書

法이며 發音을 確實히 알면 그만이다.

觀念文字로 가르친다는 말은 例컨대 「발」字는 「물」

을 받는다는 「발」字는 「곡」字를 심는다는 「발」字와

같이 取扱함을 말함이다.

方言調查

湖南地方益山을 中心으로

中央高普 金 龍 雲

各地方의 方言(사투리)을 或時는 學校에서 或時는 鄉里에서 聽들이 엿보아 오던바, 이번 夏季休暇를 利用하여 몇마디 더 보래게 되었기로, 未備하나마 여기에 發表합니다.

(以下 京城에서 쓰이는 말과 對照하여 列記함)

가위(鋏) : ...가새, 가시개(全南順天 地方)

가을(秋) : ...가실(슬)

겨울(冬) : ...키슬, 즉(적), 질기

개구리(蛙) : ...개구락지

그네(鞦韆) : ...근디, 근지(全南)

질매(全州)

기른다(養) : ...킨다, 키운다

내(溪) : ...내갈, 내까랑, 꼬랑,

또랑(개천)

냉이(薺) : ...나싱개, 나생이(全南)

머리(頭) : ...대갈빱, 대장이, 대가

리(以上 下稱語)

뒷간(厠) : ...소매간, 칩간, 통시간,

통시

목침(木枕) : ...토막

버러지(虫) : ...벌거지, 벌레

뼈(骨) : ...백다구

별(星) : ...빌, 벨(全南)

뿌리(根) : ...뿌링이, 뿌링구

비(簾) : ...비짜락, 비짜락

사나이(男) : ...머시매

새끼(繩) : ...새내끼, 내나끈

아버지(父) : ...아빠, 아박(濟州)

어머니(母) : ...엄마, 어매, 어멍(濟州)

어긔(速) : ...차게, 후닥빨리

여우(狐) : ...여수, 여시

옷(衣) : ...입성

왼(左) : ...외약

우물(井) : ...시암, 새암

자(尺) : ...차대, 재(全南)

조(粟) : ...쉬스, 스스

조금(少量) : ...찌끔, 찌꼬매, 찌깨

김매다(耘) : ...지심매다

참외(眞瓜) : ...차무

턱(額) : ...티가리, 턱죽박이

토끼(兔) : ...퇴깡이

허리(腰) : ...잔둥이

허리띠(帶) : ...겔띠, 패리

혀(舌) : ...쉬, 쉬빠닥

호미(鋤) : ...호맹이

팔(腕) : ...팔뚝, 풀(全南)

팽이(獨樂) : ...뱅이

침하(檐下) : ...집시랑

종이(紙) : ...종이때기(紙屑)

언덕(丘) : ...어덕, 엉덕

생강(生薑) : ...시양, 새양

새우(蝦) : ...새웅개

벼개(枕) : ...비개

벼(稻) : ...나락, 나룩(濟州)

바가지(匏) : ...박적

못(釘) : ...말고지

모이(餌) : ...모시

모래(砂) : ...모새

뜰(庭) : ...뜰팡(농은곳), 마당(넝은곳)

여승(女僧)……신중

게(蟹)……기, 귀, 그이

까치(鵲)……간치

지요……(問)허지요? (答)허지요

는지요……(니니까의 뜻)

예 하는지요?(합니까)

했는지요?(했습니까)

라오(우)……(니니까)?……(니니까)

예 사람이라오(우)……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問:「라오」의 오음을 노음

答:「라오」의 오음을 낮음

게라오……(니니까)

예 하게라오(할랍니까)

가게라오(갈랍니까)

……는게라오……(니니까)

예 먹는게라오(먹습니까)

하는게라오(합니까)

했는게라오(하였습니까)

외라오(어라오)……(니니까의 뜻)

예 했어라오(하였습니까)

해졌어라오(하였습니까)(노음)

지라오……(니니까)

예 허지라오(現)(합니까)

했지라오(過)(하였습니까)

하졌지라오(未)(하졌습니까)

만디오……(허지 안했다는 뜻)(혹은

니니까)

예 먹엇만디오……먹엇습니까

먹지 안했다

갸오……(러이오 問)

예 하시갸오(하실러이오)

지야……하였지야(下問)

附記

ㄱ, ㅋ, ㆁ의 轉化

全北地方은 大概「ㄱ」로

全南地方은 大概「ㄴ」로 發音함

예 「꽃(豆), 물(馬), 풀(腕), 푸

리(蠅)」……를

全北地方은

「팔, 말, 팔, 파리」로

全南地方은

「풀, 물, 풀, 푸리」로

發音함

但 濟州島에서는 「ㄱ」와 「ㄴ」의

中間音을 내는 모양。

「ㄴ」, 「액손드」는 大體로 順調롭고,

특히 慶尙道地方은 初音을 強하

게 하는 모양。

ㄷ, 「△」音의 轉化

△ ○로 가을, 가위

ㅅ로 가을, 가새

以上 方言中에 口蓋音化하는 單語

는 이를 列舉하지 아니하였읍니다。

方言蒐集

朝鮮語辭典會에서 各地方 方言을 蒐集하기 위하여, 四九年前부터 府內 各 中等學校 以上 學生을 總動員하여, 夏期放學時 歸鄉하는 學生으로 하여금 方言을 蒐集하였던바, 이미 蒐集된 것이 萬餘點에 이른지라. 이것을 장차 整理하여 辭典 語彙로 收用할 豫定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方言調查欄을 特設하였으니, 누구든지 이欄을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자의 소리

이欄에는 讀者 諸氏로서 어떠한 意見이든지 다發表할수 있습니다. 提議나 反論이나 무엇이든지 써 보내시오.

우리의 文化를 빛내자

— 辭典 編纂에 協助하라 —

申 瑛 激

모든 歷史의 바키는 人類 自身的 길 내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다.

努力이란 그것이며 運命이란 또한 그들 自身の 所爲다. 歷史의 큰 힘은 文化다. 文化 없는 백성은 暗黑하며 暗黑은 退步를 이끌며 退步는 滅亡을 意味한다.

우리도 오랜 文化的 歷史가 있으며, 近世 數百年 事大思想의 潮流에 피었던 文化的 꽃까지 흘려 버려보냈으니, 작든던 새로운 순이 어찌 잘 컸을 것이며, 더군다나 무슨 크나큰 자

랑이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그나마 아직 남은 우리 文化의 시들은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자!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江山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자. 이때를 허송하면 永永 다시 못볼 것이다.

兄弟여! 姊妹여! 우리는 우리 固有한 文化를 잃고서는 도리어 落伍에 處하여 있을뿐이다. 文化의 中心 原動力은 語文이어서 모든 나라의 先覺者는 먼저 이 運動에 힘쓰는 것이니, 우리 조선에서의 『한글운동』이란 것도 또한 이것이다.

무릇 어떤 民族이나를 勿論하고 그들이 가진 마지막 보배 마지막 남은 힘은 語文이며, 이는 잃어서 안 되는 生命인 것이니, 또한 그리 쉽사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없앨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人類 歷史上 許多한 民族과 얼마나 그녀의 母語 運動을 重要視하고 그의 發展에 힘썼나를 펴이나 많

이 알며, 現代의 모든 民族 또한 日夜로 이 運動에 勞心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항상 보는바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우리 사람 가운데는 『조선말 배우면 돈 생기나』하는 專門學校 學生이 있으니, 얼마나 無自覺한 말이며 個人主義的 小人의 소리냐. 人類同胞 萬年의 大計를 생 각 못하고 오직 돈 얻고 못 얻는 것부터 생각함은 무슨 더러운 생각 이냐. 또 배우는 時間이라야 그들의 雜談時間과 戀愛小說 읽는 時間보다 얼마나 길은 것이냐. 나는 더 말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긴 잠을 자고만 있을 것인가.

조선의 學徒야 識者야 어찌 슬픈 일이 아닐가 보냐. 兄弟여! 姊妹여!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며 우리 子孫과 人類同胞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文化의 새로운 創造가 있게 하고자 함이 아니든가. 편지 한장 똑똑히 못 쓰는 學徒를 과연 現實 朝鮮이 要

求할 것인가. 그리고서도 外國語에 能함을 자랑하는 자 있다면 그는 精神病者다. 무슨 名譽이라. 同胞는 깨닫는바 있으라! 標準語가 査定되며 말광(辭典)이 또한 나오려 하는 이때 어이 그리 잠잠한가. 다시 말한다.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 文化를 빛내야 된다. 우리는 우리 文化의 中

心運動인 말광 편찬의 大事業을 힘껏 도와야 된다. 아아, 부끄럽도다. 우리는 남들보다 뒤떨어질 것이다. 우리의 過去가 얼마나 쓸쓸하였는가. 인케야 말광이 나오려 하니? 物心兩面으로 우리는 積極 後援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社會의 識者와 富豪는 이때에 經濟的 使命을 다할지

니, 만약 이 땅에 있어서의 그네가 이 使命을 잇는다 하면 그네의 存在 理由는 무엇이며, 우리 二千餘萬 同胞는 과연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물을 지경이 될 것이다. 三千里 半島의 피를 받은 兄弟여! 姊妹여! 햇불은 올랐다. 주저하지 말고 奮起하라!

聖經 책에 나타날

新綴字 한글글

長老教會에서 會員 萬名 募集

고루 퍼질 이 땅의 큰 빛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서
 성경(聖經)을 통일된 신철자법의
 한글로 출판하는 결의안이 채
 태된 것은 당시 기보하였거니와, 그
 출판이 인케쯤 실현될 것인가 때
 우 주목되던중, 이번에 그 구체
 로, 아직 상세한 것은 결정되지 아

니하였으나, 대체 제일회 출판에
 일만부 가량을 인쇄할 작정으로
 권조선 각교회로 주문할 부수를
 조회중이라 한다.

근대 조선 신문화 운동에 있
 어 그 선구적(先驅的) 역할에 거
 대한 공적을 남긴 예수교의 성
 경이 이제 한글로 인쇄한다는 것
 은 통일된 한글 보급에 절대한
 공헌이 될 것이어서, 각방면으로 크
 게 기대되는 바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에서)

指導例 (12)

京城女子師範學校 沈宜麟

一、教材 二十一音(新單終聲字)

二、要旨 諺文的綴字法練習教材로 提出한 新終聲 中 單終聲의 一覽表이다。 이때까지의 習得한 既知의 新終聲 文字를 가지고 歸納적으로 本表의 總括的 法則 關係를 알리고, 또 實際의 用語에 應用케 할것이다。

三、教材要項

(一) 既授文字에 依하여 歸納한 新終聲表
 (既授文字) (新終聲) (讀法) (單獨 또는 子音 과 連接할 때)
 돌, 받.....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갈, 끝, 말, 발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별, 불, 알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낮, 맛, 잇, 짓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몇, 꽃, 쑤, 낫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낮, 앞, 꼬, 높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룡, 요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 ㅈ..... ㅊ..... ㅅ..... ㅆ.....

(二) 本表 文字의 觀念

(ㄷ) 닫(閉), 받(受), 얻(得), 걷(收), 벌(延), 곧(直), 돌(萌, 昇), 쏟(注), 굳(堅), 묻(埋, 附) 밑(信)

(ㄷ) 갈(如), 밑(任, 嗅), 밭(田), 팔(小豆), 얇(淺), 겹(表), 벌(陽), 물(陸), 붙(附), 끝(端) 흩(散), 밑(底), 짙(濃), 뱀(吐)

(스) 낮(晝, 低), 맞(迎, 打), 찾(尋), 젖(濕), 꽃(插), 못(惡)

(ㄷ) 낫(顏), 몇(幾), 꽃(花), 좃(從), 쫓(追), 숯(炭), 빛(光)

(ㅈ) 앞(前), 갓(報), 엮(覆), 덮(蓋), 씩(薪), 옆(側), 높(高), 숲(林), 잎(葉), 깊(深), 싶(願) 쥘(杖藜), 무릎(膝)

(參考) 本表外에 新單終聲이 붙을 字
 뜯(拔取), 뻗(伸), 절(側), 살(腋), 부름(腫), 찢(裂), 꾸짖(叱), 부딪(着), 버릇(散), 부르짖(叫), 잣(頰), 알맞(適), 돛(帆)

(三) 應文
 닫... 잠잘 때는 문을 꼭꼭 닫고 문을 닫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안케가만이 닫어야 한다.
 받... 어른이 주시는 것은 한손으로 받지 말고 두손으로 공손히 받아야 한다.

엄·: 힘들며 일을 하고 엄은 돈이 청말 귀중한
자과의 돈이다.

걸·: 빨래는 말라야 걸고 곡식은 익어야 걸어들
인다.

벌·: 어린이의 자라는것은 벌어나가는 착이나 텅
굴과 같다.

곧·: 곧은 길로 곧게만 가면 조금도 거리낌이 업
슬것이다.

돌·: 돌아 올라오는 아침해와 같치 곱고 아름다
운 마음을 가차야 한다.

봄·: 봄이 되면 모든 풀삭들이 땅에서 생긔잇게
뻗죽뻗죽 돌아나온다.

쏟·: 한번 쏟아버린 물을 다시 주어담을수는 없
다.

곧·: 무슨 일이든지 청공하려면 곧고 곧은 결심
을 가차야 한다. 곧은땅에 물이 고인다.

물·: 아궁이 앞에 가면 거맹이 묻는다.
민·: 집에서 부모님을 믿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을 믿어야 한다.

뜯·: 뜯어서 소가 풀을 뜯어먹는다.
뺨·: 팔다리를 뺨고 편안히 누었다.

같·: 날마다 같치 높고 같은 글을 배우는 청다
운 등모는 언케든지 잊을수 업다.

말·: 코로 말아보아서 흉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걸고 먹지 말것이다.

자·: 자가 할일을 맡거든 열심으로 할것이다.
밭·: 밭에서 땅을 흘리고 땅을 파는 농부야 참
으로 우리의 은인이다.

팔·: 햇팔으로 지은 팔밥은 맛이 조다.
얇·: 바다에도 얇은 곳이 잇다.

걸·: 걸으로만 보아도 속을 알수가 잇다.
벌·: 나리쪼이는 벌에서 땅을 흘리며 일을 한다.

물·: 개고리는 물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산다.
불·: 지남철에는 철이 들어불는다.

끝·: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흘·: 흘러진 쌀알도 쓸어모면 심쌀이 된다.

밀·: 꽃나무 밑에서 옛본 어린애가 방긔이 웃으
며 떨어진 꽃잎을 즐고 잇다.

질·: 같은 붉은 불감을 가지고도 질게 들이면 밭
강이가 되고 열게 들이면 별경이가 된다.

뺨·: 두려누어 침을 뺨으면 자귀 얼골에 떨어진
다.

살·: 개가 무서운것을 만나면 꼬리를 살에다 끼
고 도망을 간다.

를·: 밭이 부를어서 길가가 어렵다.
낮·: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낮은 물건은 얼마 아니 쉬서 결단이 난다.

맛: 동쪽에서 매맛고 서쪽에서 눈흘킨다.

아버지 하신 말씀이 참으로 꼭 맞았다.

청거장에 가서 친구를 맞아 왔다.

모든것이 알맞아야 한다.

찾: 날이 커들면 온갖 김생들도 케 집을 찾아 간다.

젖: 길에서 비를 만나 옷이 젖었다.

꽃: 계집애가 꽃을 따서 머리에 꽂았다.

곳: 곳은 살로 밤을 지으면 맛이 없다.

곳은 일에는 집안이다.

늦: 아침밤이 늦으면 그 날 일도 늦는다.

잇: 자기의 은인을 잊지 말라.

빛: 술을 빚어 독에 담겨노코, 송편을 빚어 시

루에 찌고, 만두를 빚어 솟테 끌여서 잔치를 한다.

짓: 개가 짖을 때는 고개를 쳐들어서 입을 벌

리고 잇발을 내보이며 무심하게 군다.

어른이 꾸짖을 때 말대답을 하면 못 쓴다.

고기를 남비에 너코 짓어서 먹는다.

사나운 호랑이도 할청에 빠지닛가 살려달라

는 뜻으로 부르짖으며 온다.

맺: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두근을 이을 때는 매듭을 맺는다.

뺨: 가시나무에 걸려서 옷이 찢어졌다.

짓: 병이 짓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뒷: 유리그릇은 부딪으면 깨지기가 쉽다.

룻: 닭들이 모이를 찾느라고 버릇어서 땅이 파

엿다.

낮: 늦그러운 때는 낮이 붉어진다.

뫼: 소용업는것은 뫼이 잇든지 버릴수밖에 없다.

꽃: 나비가 꽃을 찾아서 날려단진다.

꽃: 부모님 말씀대로 잘 꽃아서 지키는것도 효

도의 하나이다.

꽃: 논속에 쉬잇는 허수아비는 말도 업시 새만

꽃: 솟는다.

솟: 솟레는 밤도 짓고 국도 꼬린다.

솟: 솟을 피여 화로불로 쓴다.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업슬것이다.

돛: 도야지를 돛이라고도 한다.

돛: 돛을 단배가 불우에 떠단진다.

앞: 앞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작고만 간다.

값: 빚진돈은 반다시 값어야 신용을 얻는다.

엷: 뚜껑은 엷어서 덮어야 한다.

덮: 책을 덮어노코 글을 외인다.

덮: 해가 넘어가는 산길에 덮을진 나무군이 집

을 찾아 내려온다.

료:연에 책보를 끼고 학교로 들어간다.

높:대산이 높다. 한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높

을가.

쇼:송이버섯은 소나무쇼에야 잇는것이다.

료: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앓는 법이다.

요:살살한 모진 바람이 단풍든 고은뉘을 혼들

어서 떨어뜨린다.

나물 될것은 떡뉘 때부터 알아본다.

꼬:엇던 땅이든지 꼬게 파면 물이 나온다.

쇼:무슨 일이든지 하고쇼어서 하면 되는 법이

다.

짚:짚신은 벗짚으로 삼는것이다.

백발도인이 지평이를 짚고 구경을 단진다.

四、時間配當 (七時間 取扱)

第一時:(既知文字의 取扱)

1、既授의 新終聲文字 板書와 讀法 練習。

2、終聲의 讀法 練習。

3、既授文字로 單文을 짓는 練習。

第二時:(ㄷ終聲의 取扱)

1、「단」부터 「민」까지 讀法 練習, 單獨 又は 子

音이나 母音을 부쳐서

2、各字에 意味觀念을 가르치고 語尾를 活用하

야 읽는 練習。

3、應用文의 讀法 練習。

第三時:(ㄷ終聲의 取扱)

1、「갈」부터 「밭」까지 讀法 練習, 獨單 又は 子

音이나 母音을 부쳐서

2、各字에 意味觀念을 가르치고 語尾를 活用하

야 읽는 練習。

3、應用文의 讀法 練習。

第四時:(ㄷ終聲의 取扱)

1、「밭」부터 「밧」까지 讀法 練習, 單獨 又は 子

音이나 母音을 부쳐서。

2、各字에 意味觀念을 가르치고 語尾를 活用하

야 읽는 練習。

3、應用文의 讀法 練習。

第五時:(ㄷ終聲의 取扱)

1、「밭」부터 「밧」까지 讀法 練習, 單獨 又は 子

音이나 母音을 부쳐서。

2、各字에 意味觀念을 가르치고, 語尾를 活用하

야 읽는 練習。

3、應用文의 讀法 練習。

第六時:(ㄷ終聲의 取扱)

1、「앞」부터 「짚」까지 讀法 練習, 單獨 又は 子

音이나 母音을 부쳐서。(以下는 七頁에 繼續)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語彙調查

(自卷一至卷四)

教科書와 統一案과의 對照

[6] 李浩盛

(통일안 난에는 교과서와 다른것만 적음)

교과서 통일안

도(道) 도밀에는
 도라지 도령
 도령님은
 도령님입니다
 도로 도로혀
 도리 도리가
 도모지 도야지
 도야지샷기가
 도척 도척이
 도척된다
 도척

교과서

도착하니까
 도착하는

도통(大體)

도회
 도회임을
 도회고

또
 되다(成)

되었소

되어서

되었습니다

되었는지

되어

되어갑니다

되고

되시기전

되오

되는큰산

되지안았습니다

되나봅니다

되었었니

될줄압니다

될수있는데까지

됩니다

꼭된말

되돌아오다

되돌아와서

독(器名)

독가비

통일안

도착하니까

되었소

되어서

되었습니다

되었는지

되어

되어갑니다

되고

되어

되어갑니다

되지않았습니다

되었었니

될수있는데까지

도카비

교과서

독가비들이
 독기(斧)

옥독기로

금독기로

독

독같은데

독독이

돈

돈으로

돈을

돈지갑을

돈다

돈는다

돈오오

돌아오는

돌(石)

돌아가다(歸)

돌아가

돌아오다

돌아왔네

돌아오는길

돌아와

돌아보다

돌아보면서

될칭부르다

될칭부르나볼

돕다

돕나나라

동(東)

통일안

도카비들이

도끼

옥도끼로

금도끼로

돌아왔네

동편	동쪽이요
동쪽이오	동쪽이요
동서남북을	
동쪽의	
동창의	
동그람의	동그라미
동그람이를	동그라미를
동내(洞內)	
동내에서	
동묘	동묘
동묘야	동묘야
동모들과	동모들과
동물(動物)	
동산	
동산인	
동생	
동시	
동시에	
동안	
동안이나	
동양(東洋)	
동양의도	
동정(同情)	
동정하야	
동정의	
동지(冬至)	
동지로부터	
동짓달	
동(糞)	
동에	

둑	둑단배	
두다	두었소	두었다가
두었소	두었다가	
두었다가		
두면		
두터지		
두터지가		
두루마기		
두루미		
두리번거리다		
두리번거리며		
두메		
두메의		
두벌두벌		
뒤		
뒤에는		
뒤러		
뒤편		
뒤강		
뒤마당에		
뒤주		
뒤다		
뒤어달아났습니		뒤어달아났습니
다		다
뒤어온다		뒤어온다
뒤는		
뒤통하얏다		뒤통하얏다
뒤통이		
뒤어나다		뒤어나다

뛰어난	뛰어난
뛰어들다	뛰어들다
뛰어들어갔습	뛰어들어갔습
니다	다
뛰어드니	뛰어드니
뚝배기	
돌	
돌이	
돌갯그림	
두사람	
두아해	
두개	
두날은	
두마리를	
두벌만	
두심	
두손	
두팔을	
둘레	
둘레가	
둘러다	
둘러보았스나	
둘러라	
둘러잇는대를	
둘러잇고	
둘러다	
둘러게	
둘러것이	
둘러해라	
드디다	
뛰어난	뛰어난
뛰어들다	뛰어들다
뛰어들어갔습	뛰어들어갔습
다	다
뛰어드니	뛰어드니
두아이	
둘러다	
둘러보았스나	
둘러잇는대를	
둘러잇고	
드디다	

드르다	드르다
드리고	드리고
드릴가요	드릴가요
뜨다(浮)	뜨다(浮)
뜨고	뜨고
뜨사람	뜨사람
뜨사발	뜨사발
뜨오르면	뜨오르면
뜨오를때	뜨오를때
뜨나려간일이	뜨나려간일이
뜨다(波)	뜨다(波)
뜨오라고	뜨오라고
뜨겁다	뜨겁다
뜨거운	뜨거운
뜨(帶)	뜨(帶)
뜨만	뜨만
뜨처럼	뜨처럼
뜨다(帶)	뜨다(帶)
뜨고	뜨고
뜨것도	뜨것도
뜨우라(浮)	뜨우라(浮)
뜨우시면서	뜨우시면서
뜨든하다	뜨든하다
뜨든하야지드라	뜨든하야지드라
뜨다	뜨다
뜨고잇습니다	뜨고잇었습니다
뜨는	뜨는
뜨(野)	뜨(野)
뜨로	뜨로

들어오	들어오
들어서	들어서
들길로	들길로
들다(持)	들다(持)
들고	들고
들어	들어
들다(舉)	들다(舉)
들다(入)	들다(入)
들어왔소	들어왔소
들어온	들어온
들어가는사람	들어가는사람
들어앉을곳	들어앉을곳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레다	들레다
들레는데	들레는데
들리다	들리다
들리는수가	들리는수가
들리거든	들리거든
들려주게	들려주게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들여드리다	들여드리다
들여드렸습니다	들여드렸습니다
들	들
들뿔	들뿔
들다	들다
들으오	들으오
들을수	들을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다	들었습다

들은체도

듯고

듯기

뜻밖에

등(燈)

등잔불을

등(背)

등(等)

우편국등을

상침등의

등한(等閑)하다

등한히

들고

들기

崔仁化氏 著

世界笑話集

定價 二十五錢、送料 二錢

잘막잘막한 가장 興味있고 우수
 운 이야기들 널리 世界에서 모은
 것이 二百 八篇。鬱寂한 사람, 病
 苦한 친구로 한번읽게 하면 慰藉
 의 資料가 넉넉할것이다。本社로
 注文하시어도 좋다 (送料는 本社負
 擔)

한글

바루 잡아 쓰기 힘 익

옆에 쓴 것
이 바른 것
이를 꼭 때
자매 자
후어서
시오. 보

만물초 (萬物草)

楊蓬萊 지음

풍암에 처 처 처
이 잇고, 온딩의 처 처 육
붕이 잇고, 붕 꼭대기에 옥녀 처
두분 슈십이 잇고, 발의 처 이십
리에 석문을 돌코 나오는 시내가
잇스니, 시내를 차자 문으로 들어
가 오락리쯤 곱 가면, 그 안이 휘하
게 트이었는데, 옥봉(玉峯)이 들리
고 경애(瓊崖)가 쌓여 일대 동련을

이루었스되, 흠이라고는 한 줄도 없
스며, 이따금 풀 난 것이 잇으나,
범상한 것은 하나도 잇지 아니하며,
동중에 서리서리 눈 갖치 깔리
반들반들 얼음 갖치 엉킨 것이 슈수
리에 림림하였는데, 인형 불형으로
생기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
그 수는 귀만 억인지 알지 못하겠
스며, 이리 생기고 더러 생긴 것이
모두 산듯하여 얼는 보매 경도할
밖에 없 업고, 자제히 살핀 뒤에 돌
임을 알지니라. 사람으로 생긴 것은
천이도 잇고, 안진이도 잇고, 누운
이도 잇고, 이려난이도 잇고, 마조
서 처 음하는이도 잇고, 엇개 젓고

무 동모한이도 잇고, 팔쌍끼고 천천히
가는이도 잇고, 할개치며 바비 지
나는이도 잇고, 소 탄이 말 탄이
도 잇고, 양 치는이 돌 치는이도
잇고, 증으로 레불하는이도 잇고,
선배도 강경하는이도 잇고, 레복 남
고 어른 앞헤 나온이도 잇고, 발
꽃 맞혀 향렬진이도 잇고, 씨름하
는이 래전하는이도 잇고, 곳센척 힘
자랑하는이도 잇쳐, 존비귀천 상하
대소의 무릇 사람의 심경 색상 처
고 업는 것이 업스며, 품들로 생긴
것은, 용도 잇고, 범도 잇고, 괴린
도 잇고, 봉황도 잇고, 매수리사

삼슴 토끼 따 샷위의 그 류가 무수하
 여, 나는놈에 단 닷는놈, 뒤는놈에 귀기
 는놈, 날개 펴고 춤추는놈, 쪽지 음오
 무 으리고 메 찻는놈, 고개 쳐들고 우
 는놈, 목아지 비틀고 조는놈이며,
 가랭이 쪼여지게 서로 쏘는놈, 고
 개를 한대 모고 떼지여 잇는놈,
 들어워 위 소용치는놈, 달겨드려 바반
 드려 드라는놈, 가지각생이 가추가추 잇잇
 으스며, 꼭 지덤하야 아모것이라 하
 기는 어려우나, 이보다도 오히려 더
 한것이 잇스니, 중만(重蠻)과 첩장
 (疊嶂)이 구름을 뚫어쳐 잇는것은

완연히 구중궁궐이 반공에 높히 소
 은것이오, 첨석(尖石)과 메암(銳巖)
 이 하날을 썰러 솟은 것은 흙사하
 천지검극(千枝劍戟)이 일련에 쪽별
 녀려 잇슴이라, 이음이 바라보매, 처
 절로 절노 경의가 나쳐 그 앞에 풀어
 절할밖에 업나니, 아마도 조화옹이
 인물을 만들 썬에 초를 여긔 삽
 으섯다가 썬쳐두심인가. 금강산을 보
 지 못하면 천하의 괴이를 이악이
 하지 못할것이오, 만물초를 보지 못
 하면 금강산의 괴이를 이악이하지
 못할지니라.

宋完植 編

新最 日鮮大字典

▲四六判五 百八十頁
 ▲印刷精麗 寫眞版
 ▲裝幀堅實 漢裝

◎定價 一圓五十錢

送料 十錢

이에서이 책은 普通 다른 字典
 불수 없는 아래 여러가
 지의 特色을 갖후어 있다.

- 一、字數가 가장 豊富하여 朝鮮, 日本, 中國의 俗字까지 無漏收
- 二、朝鮮文 訓釋을 新綴字法(統一案)으로 한것
- 三、解釋을 가장 詳細히 한것
- 四、古代의 儀器, 服飾 및 動植 物을 插圖한것
- 五、外國語 譯字는 原語를 對照 한것
- 六、古代의 地名, 山名, 水名, 國名等을 現今의 것과 對照한것
- 七、草書 篆書를 插入한것
- 八、音考가 잇는것

〔本社로 注文하신이 에게는 二割引 提供, 送料는 本會가 負擔〕

文學과 文士와 文章

(完結) 李 光 洙

글을 쓰는 것은 日常生活에 必要할만한 글을 쓰는 재주는 比較的 배우기가 쉬운 일이기 때문에 흔히 글짓는 공부를 疎忽히 하는이가 많습니다. 畫家 되려는 사람이 劃工夫와 色彩工夫와 構圖하는 工夫를 아 니하고도 된다고 하거나 醫師가 醫學을 아니 배우고 도 行術할수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래고 웃겠지만, 그러면서도 文士 되려는이가 글공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觀念은 적은듯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보는 글 들, 편지, 新聞 雜誌의 글, 詩, 小說, 같은 純文學의 글 까지도 오늘날 조신글은 語彙의 貧弱, 不正確으로 보거나 文法, 修辭法의 잘못이 많은것으로 보거나 말 아닌 글이 多數인것 같습니다.

文學과 文章은 몸과 魂과 같습니다. 文章이란 文章 自體만으로도 藝術이라고 믿습니다. 古來로 文豪 라는이들의 文章의 修練에 對한 苦心慘愴은 普通사람의 想像 以上입니다. 李白이가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다든지, 蘇東坡의 赤壁賦 初稿가 큰 광

주리로 몇개라든지 다 文章에 對한 苦心을 말하는 것입니다.

近代에 와서 印刷術이 發達이 되고 一時的 生命만을 目的으로 하는 글이 많기때문에 글을 아무렇게나 쓰는 弊端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비록 現代라 하더라도, 大衆의 글을 보면 一言一句 一點一劃도 각각 다 제 자리가 있어서 하나도 허수려운것이 없음을 볼것입니다. 하물며 數千年, 數百年의 生命을 가지고 오는 傑作이라는것을 들면 그 內容은 말고라도 文章의 美와 힘과 變幻無窮함만으로 再讀 三讀하는 興味와 價値가 있는것이니, 某氏의 佛國寺 石造品の 評을 듣건만, 그 藝術的 創造力 말고 石工의 技術만으로 재주있는 사람이 十年工夫는 하여야 되리라고 하였읍니다. 文章 工夫도 그와 같습니다. 슬픈 글은 슬프게, 壯한 글은 壯하게 느린것을 그럴 때에 느리게 急한것을 그럴 때에 急하게, 큰것을 그럴 때에는 크게, 雅할 때 雅하고 俗할 때 俗하고 모든것이 自由自在롭게 되어야 비로소 木工이나 畫工이나 또는 音樂家와 같이 제 마음대로의 모양, 리듬, 品格을 表現할것입니다. 文章이 서투른 글은 서투른 畫工의 그림과 같아서 높은 山을 그린다는것이 주먹만 흙무테기가 되고, 호랑이를 그린다는것이 개가 되고 슬프라고 쓴것이 우습게 되는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文章도 藝術이란 말슴을 하였거니와, 文章도 藝術이기때문에 文章에도 筆者의 人格이 비추입니다. 「풀이」 사람이라 한이도 있거니와, 우리는 칼라일의 글과 에머슨의 글을 각각 한페이지씩만 읽는다면 거기 쓴 內容은 보지 아니하고도 이는 꺼칠꺼칠한 사람이요, 커는 平和로운 사람인것을 알것입니다. 기운찬 文章, 아름다운 文章, 침잠은 文章, 시언시언한 文章, 그 쥐가 그 꼬리를 문 文章, 다부진 文章과 허버러진 文章, 능글능글한 文章과 아담한 文章, 바라고 야시꺼운 文章과 미끈한 文章, 꼬집어뜯는 文章等 우리는 文章의 性格을 判斷할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그 글을 쓴 文士의 性格을 判斷할수 있는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文章은 文學이라는 藝術의 修練에 人格의 修練과 아울러서 가장 큰 修練이 되는것입니다. 最後에 文學과 人生과의 關係를 몇말슴하고 이 이야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첫재로 人生은 苦海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므로 人生은 慰安을 求합니다. 安心立命을 求합니다. 어떤이는 이를 宗教에 求하고, 宗教에 信仰을 못가진이는 酒色 其他의 享樂에서 慰安을 求합니다. 이렇게 苦悶이 많은이에게 文學은 가장 廉價

로 求할수 있는 慰安이 됩니다. 하루밤 술먹는 돈은 가졌으면 좋은 文學書 몇권 乃至 몇十卷을 살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하루밤에 三四十頁만 읽으면 지극히 愉快的중에 심심한 한 밤을 보내고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자리에 들어갈수가 있을것이요, 만일 그중에 더욱 좋은대를 朗讀한다고 하면, 원 家族이 團樂하여 慰安을 받을것이니, 이것이 西洋의 善良한 家庭에서 흔히 하는 일입니다.

둘재로 人生에게는 向上의 理想과 慾望이 있습니다. 宇宙와 人生의 秘密을 알아보고 또 더 높이 더 깊이 더 크게 感激하고싶은 慾望이 있습니다. 이러한이에게도 文學은 좋은 伴侶가 될것입니다.

셋재로 사람에게는 以上에 말슴한 慰安 卽 宗教的인 要求와 宇宙와 人生의 機微를 알려도 哲學的인 要求 以外에 純藝術的인 要求가 있습니다. 칸트가 判斷力의 批判이라는 現代 藝術哲學의 基礎를 이룬 책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모든 實用的 價値——宗教的인것, 哲學的인것은 實用的 價値입니다——를 떠나서 藝術的 表現 그물건에 대한 要求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그림을 보면 좋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다, 詩나 다른 文學도 그러하다——하는것입니다. 그래서 藝術이란 實用的 要求를 짝하지 아니하는 기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藝術的

求는 社會의 文化가 높아갈수록 個人的 敎養이——
 精神生活이 높아갈수록 強烈해지는것이어나와、小兒나
 野蠻 未開人에게도 없는것은 아닙니다。人生의 生活
 全體가 藝術化가 된다면 그만 愉快한 人生이 없겠
 지마는、또 그것이 人生의 理想이겠지마는、뜻있는 사
 람은 힘이 및는대로 쉼과 및 쉼의 家庭의 生活을 藝
 術化하려고 합니다。좁은 마당귀에 심은 한포기꽃、
 방안에 걸린 한폭 그림이나 글씨、담뱃머로 흘러오
 는 피아노의 울림、일하고난 저녁 등불 밑에 손
 에 들린 詩集——이것이 얼마나 人生을 愉
 快하게 정답게 부르롭게 그리고 깊숙하게 하는것입
 니까。

이러한 人生의 藝術的 要求中에 가장 값싸게 가
 장침게 求할수 있는것은 文學입니다。그림이나 樂器

처럼 빛차지도 아니하고 求하기、가지고 다니기 어렵
 지도 아니합니다。책 한권만 몸에 지니면 햇볕이나
 불빛 있는 곳이면 어디든 享受할수 있는 福이요 快
 樂입니다。칼라일이「英國으로 하여금 웨익스피어를 잃
 게 할진댄 차라리 印度를 잃게 하라」고 한것이 이
 러한 뜻입니다。英國의 豊富한 健全한 文學은 英語
 를 말하는 國民들의 누구나 다 享受할수 있는 永遠
 하고 普遍的인 財産이기때문입니다。孔子님도 그 아
 드님을 보시고「네 詩를 읽었느냐」「못 읽었습니다」「그
 러면 아직 터부러 말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文士들은 좋은 文學을 지으시고、一般 여러가지 일
 에 바쁘신 同胞들은 좋은 文學을 사랑하기를 바
 랍니다。

特 告

한글 統一의 途程에、一方으로 沮害를 敢行하는 少數 反對 分子가
 없지 아니합니다。그는 과연 무엇을 主張하는가? 어떠한 術策을
 쓰는가? 그 肺肝을 들여다보듯 알고저 하시는분은 本會로 통기만
 하시면 책 한권(本誌 二月號)을 送문하겠읍니다。

朝鮮 語 學 會

조선역사강화 (五) 상고편

고구려 인의 독립운동

그러나 이때 고구려의 멸망은 그 나라 서울에서며, 반도 이내의 국토에서 뿐이었읍니다. 압록강 이북에는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한 성이 많이 있어, 북으로 말갈의 국토를 중심으로 하여 별개의 나라를 건설하기에 힘썼으며, 반도 안에서는 검모잠(劍牟岑)을 수령으로 하는 독립운동 같은 것이 한참동안 계속하여, 금마커(金馬漕)를 중심으로 후고구려가 건설되었다가 십사년만에 소멸하였읍니다.

신라의 사적사명

신라는 무엇을 위하여 당나라에게 원조를 청하였으며, 백제와 고구려를 기어히 멸하였는가 하면, 첫째는 국가적 방위의 필요로 나온 것이며, 둘째는 민족적 통일필요로 나온 것이니, 대세상으로 말하면, 삼국이 통일되어야 서북과 동남에 있는 호전적(好戰的) 이 민족의 압박을 받지 않게 될 추세에 순응한 것입니다. 백제 고구려 두 나라가 없어지면, 두 나라에게 받는 위구어는 벗어남을 얻었지만, 각개의 옛 국토가 별별이 따로 있고, 게다가 당나라의 군현제(郡縣制)가 근속되다 하면, 이는 신라 및 일반 반도민족의 본

연한 요구의 어그러짐이 크다 할 밖에 없으니, 이에 신라는 변해진 국면에 대한 새 책등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신라의 당나라를 업음은 본디부터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집어치우기까지의 방천인즉, 이 목적이 이미 성취된 시방와서는 신라는 진실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의 수단을 버릴 밖에 없읍니다. 그리하여 고구려가 없어진 이듬해 곧 문무왕 구년(서력 六六九年)으로부터 당나라의 도독(都督)이 있거나 말거나 고구려 백제 두 나라의 땅을 차차 쳐 빼앗기 비롯하여, 당나라가 노하여 꾸짖으면 겉으로 사과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반도인의 반도의 실상 얻기에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몇해 후에는 당나라에서도 이루란하기 어려워져 신라의 새 영토의 차지하는 것을 묵인하다가, 북방에서 발해국(渤海國)이 신흥하며, 미처 이것은 견제할 필요상으로 대동강 이남의 땅을 공공연하게 신라에게 내어주게 되었읍니다. 신라의 통삼운동(統三運動)은 이 당나라의 세력을 구축함에 이르러 비로소 명실이 상부하게 되었다 할것입니다.

대조영의 해건국

그러나 신라의 이른바 통삼(統三)은 깃하야 대동강 이남에서만 할수 있는 말이요, 명색으로 당나라에 붙인 시방 평안도의 서반부를 제하고, 대동강 이북에 있는 고구

려의 유민(遺民)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된 새 나라에 승계되었습니다. 고구려가 망하며, 그 유민이 많은 북방 속말 말갈의 땅으로 몰리어서, 무릇 삼십년만에(서력 六九九년) 대조영(大祚榮)이란 통솔자를 얻어서, 흘한성(忽汗城)을 도읍으로 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진(震)이라 하니, 진은 실로 세계 통일자의 뜻으로 동방의 토티(濶土)를 불어 이 이름이며, 뒤에 당나라에서 이것을 발해(渤海)로 불리어서, 이것이 드디어 통칭한 이름을 이루었습니다. 원산 및 대동강 유역 이북으로부터 흑룡강까지에 이르는 지방 오천리의 지역을 차지하여 오경(五京) = 십오부(十五府) 육십 이주(六十二州)를 두고, 수만 대병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 당나라도 더부러 교통도 빈번히 하여, 모든 정도가 다 우월하였읍니다. 이렇게 범백이 고구려만 못하지 아니하고, 당나라와 신라에 대하여 잇기 어려운 원한이 있건마는, 일시의 소충들은 있으되, 한번 시원시원히 북방의 강맹을 밟아버리지 못하기는 또한 서쪽에 그러한 한강적을 데리고 있어 기를 펴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진은 대조영 이후로 무왕(武王) 문왕(文王) 등 애왕(哀王)까지 십사대 이백 이십 팔년간(서력 六九九-九二六) 나라를 누리고, 그동안 천왕(宣王, 서력 八一八-八三〇)과 같은 국토를 크게 넓힌 영주

도 있으며, 당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에 국제무역의 도개 기축을 내이는 등, 토티(濶土)한 일이 많이 있으나, 이때로부터 후일의 조선 민족 및 문화도 더부러 교섭이 소원하므로, 이는 대개 생략하겠습니다.

그 도읍은 시의를 따라서 흘한주(忽汗州)로부터 상경(上京) 동경(東京)의 사이로 옮기어 다니었습니다. 이렇게 발해국은 고구려의 후신이라 하여, 삼국이 이후의 조선 역사는 남북조(南北朝)의 대립으로 볼 것이나, 편이상으로 신라를 삼국의 통일자라 합니다.

【주석】 一, 대조영(大祚榮) - 처음에 고구려의 장수로서 조국이 멸망하며, 그 아비 굴갈중상(乞乞仲象)과 함께 영주(營州)로 달아나 그란에 불이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뒤에 백두산 아래로 옮기어 독립군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사를 쳐서 내어쫓고, 발해국을 건설하였다. 발해국 시조로 시호는 고왕(高王)이라 한다.

二, 흘한성(忽汗城) - 흑룡강 지류 호이용하(瑚爾琿河) 상류, 지방 길림성 돈화현(敦化縣) 부근.

三, 오경(五京) 아래와 같다.

- 상경(上京) 길림성 동북부
- 중경(中京) 길림성 동남부
- 동경(東京) 함경북도
- 남경(南京) 함경남도 일부

서경(西京) 봉천성 동부

四、십오부(十五府) - 용원부(龍泉府), 현덕부(顯德府), 용원부(龍原府), 남해부(南海府), 압록부(鴨綠府), 장령부(長嶺府), 부여부(扶餘府), 막힐부(曷頡府), 정리부(定理府), 안변부(安邊府), 솔빈부(率賓府), 동평부(東平府), 철리부(鐵利府), 회원부(懷遠府), 안원부(安遠府)

五、십사대(十四代) - 태조고왕(太祖高王), 무왕(武王), 삼문왕(文王), 원왕(元王), 오성왕(成王), 육강왕(康王), 칠정왕(定王), 팔희왕(僖王), 구간왕(簡王), 일왕(宣王), 이왕(熙王), 삼왕(肅王), 사왕(昭王), 오왕(顯宗), 육왕(高宗), 칠왕(成宗), 팔왕(穆宗), 구왕(睿宗), 열왕(高麗)

六、상경(上京) - 지방길림성 영고탑(寧古塔) 부근의 동경성(東京城)。
七、남북조(南北朝) - 남조(南朝)는 신라, 북조(北朝)는 발해국。

을지문덕(乙支文德)은 평양 석다산(石多山)사람. 고구려 영양왕(嬰陽王)때의 대신. 영양왕이 삼십년에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그나라 군사를 총동원하여 고구려를 치러 오는데, 군사 수가 일백 십 삼만 삼천 팔 백이요, 깃발이 구백 육십여리에 뻗어있었다. 을지문덕이 왕의 명을 받아 이것을 방비할새, 피아의 강약

이 부동하므로 차음하지 아니하고 먼저 적군의 허실을 살피고 거기 항복하는척하고, 단신으로 적군의 진중에 들어가서 적군의 피폐한 꼴을 보고 돌아왔다. 적장 우문술(宇文述)이 문덕을 총최보낸것을 뒤우쳐서 다시 잡으려고 하여 서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잠시와 달라 하였다. 그러나 문덕은 들은척만척하고 그쳐 압록강을 건너 돌아오니, 적어 뒤를 따라 추격하였다. 문덕이 적군의 주린빛이 있음을 보고, 적군을 한껏 피곤하게 하고서 하여, 하루동안에 일곱번 차와 일곱번 달아나니, 적장이 별안간 승리한것을 가배하여 군사를 몰아 빨리 쫓아와 평양 가까이까지 이르렀다. 문덕이 시(詩)를 지어 적장에게 보내어 마음을 위로 하여 주어 돌아가게 하였다. 적군은 몹시 피곤하여 다 시 차을 힘이 없으며 또 평양성이 험고하여 용이히 쳐서 빼시 못할것을 악고, 곧 회군하여 돌아가려 하거늘, 문덕이 군사를 내어 사면으로 덤쳐치니, 적군이 달아나 살수(薩水, 지방 淸川江)에 이르러 켜이끼리 서로 혼란하여 크게 패하여 죽은자 부지기수라, 우리 군사가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압록강까지 몰아쫓았다. 적군이 처음 요동(遼東)을 건너올 때 삼십만 오천이더니, 패해 돌아갈 때 요동에 이른자가 겨우 이천 칠백에 불과 하였다.

로빈슨 절도 표류기 (六)

그리하여 그 두사람이 금요일의
아비로 더부러 외나무배를 타고 동료
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이곳에 돌
아와서는 이만저만하게 군호를 하였
읍니다.

외러날 동안을 날마다 오들이나 오
나 내일이나 오나 하여 해변으로 탐
망하러 가보아도 아무도 오지 아니
하므로, 어찌된 일인지 몰라 걱정하
고 지내더니, 어느날 아침에는 금요
일이 가

「외방남, 외방남, 왔읍니다」
하기로 내가 뛰어 나가보중, 외나무
배가 아니라, 뾰오드 같은고로 어이
한 일인지 몰라 후우리에게 대적
이 될것은 아닌가 하여, 얼른 집에
들어가 망원경을 가져다가 뒷동산에
올라가 보중, 바다위에 서 있는것은
우리 나라 배인듯한 배입니다.

이를 깨달은 때의 내 마음은 기
쁘기 총량없었습니다. 얼마아니있다
가 배가 해변에 닿은 뒤에 모두 상
륙하는것을 보중, 탄사람들은 다 야
만은 아닌데 사람 셋을 결박하여 오
는것입니다.

그들은 상륙한 뒤 모래바닥에서 잠
시 쉬더니, 인하여 이리저리도 다
헤쳐 달아나는지라, 우리 들이 그
들의 거림까지 없어진 뒤에 가만
가만히 세사람 있는 곳에 이르러 본
즉, 결박된것은 아니나, 어이한 셈인
지 일이 다 빠졌는지라, 이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외러분 놀라시지 마오. 나는 여
러분의 친구요」
한즉 세사람이 크게 놀라쳐 일어나
는데, 그중 한사람은 병거지에 얼골
을 대이고 울면서,

「노형은 정말 사람이시오니까. 하
느님이나 친사가 아니오니까」
하면서 매우 좋아합니다.

「아니오. 나는 사람이오. 뿌리렌국

사람이오. 노형네들을 위하여 돌보아
드리오리다」

하고 이렇게 된 국질을 볼은중, 그
중 한사람은 친장이라는데, 모든 친
인들이 스트라익을 일으켜 그 괴수
들이 이 세사람을 이곳에 안치할양
으로 데리고 온것이라 하는지라, 우
연히 생각이 나기를 지금 괴수들이
없는동안에 우리들의 뾰오드를 뺏어
버리면 바다에 매킨 배가 우리것이
되고 다른 친인들은 다 내게 불꽃
일듯 한지라, 이 생각대로 친장에게
권한중 친장도 매우 좋다 하므로 내
가 금요일이와 이 몇 사람들도 더
부러 염소 가죽 병거지를 쓰고 영
무와 밧친에는 아무 소용 없던 돈
을 가지고 그 뾰오드에 라는데, 일
이 매우 총급하므로 향자에 약속한
스페인국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본
선에 올라 다른 친인들 다 항복받
은후 떠날 준비를 하였읍니다.

배의 과상치도 대강 고치고 또 몇
사람은 그 섬의 남겨두어 살게 하

고 친 육백 팔십 육년 십이월 십구일에 이심을 떠나 뿌리튼을 바라고 발신하니, 지난 일을 생각한즉 이 심에 표착하여 지낸 일수가 이십 팔년 십구개일입니다.

발신한후 여러가지 고생을 다지내고 친 육백 팔십 칠년 유월 십일일에 삼십 오년전에 떠나던 고향에 남다른 모양으로 잉글랜드 흙을 밟았습니다.

돌아와 본즉 놀라지 아니할수 없읍니다. 온갖것이 다 변형되어서 마치 별세계에 온듯하고, 친구와 머슴과 과부들은 다 살아 있으나, 양친은 벌써 와 작고하였고, 손아랫 누이들과 조카 몇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내가 살아 돌아온것을보고 놀라지 아니하는자가 없으니, 삼십여년을 소식도 없이 지내었으며, 그리함도 용혹무괴요 우리 집에서 죽은 사람으로 첫서 처음 짐을 떠나던 날로 케일을 삼았읍니다.

잠시 요옥·사이아에 두류하다가

시 런던으로 돌아왔더니, 그 심에서 하마터면 그 못된 친인들에게 죽을 변한 천장이 내가 살려준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어 그 배를 나에게주는고로,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내가 도망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던 천장을 찾아보랴므로 리스본(포르투갈국 시을)으로 갈새, 금요일 이는 의례히 나를 따라왔습니다.

리스본에 와서 본즉, 노천장은 벌써 배 타기를 퇴사하고 한양하고 있는데, 나는 이때까지 생존한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그는 내가 원토에 일부러 찾아온것을 기뻐하여 구년전에 마지막 뿌리튼에 항해하였던 이야기를 하는데 참 괴열하였읍니다.

그 말을 들은즉, 우리들의 폐들은 그 곳 에 있는데, 나의 사업들을 감독하던 사람은 이미 죽고, 또 내가 간 곳도 없고 오래 음신도 없으므로 필연 죽은것이라 하여, 모든 재산의 뒷마감을 맡속하게 하여, 아무도 청구할 사람이 없는고로, 삼분지일은

정부에 바치고, 삼분지이는 빈민 구제와 토인 친목에 쓰기로 어느 회에 보내두었다 합니다.

이에 뿌리튼에 가서 본즉 과연 그 말과 같은데, 또 그 친구가 나의 소득을 말끔 잘 청리하여주고고로, 여러 만금이 된 재산을 찾아가지고, 그 일부를 과부와 두누의와 뒷조카에게 떼어주고 런던에 돌아와 노천장에게도 옛 은의를 생각하여 두렵게 사과하고, 나도 이미 늙어가는고로 뿌리튼에 있는 사업도 다 끝을 내어버리고 여생을 마칠 곳을 잉글랜드로 청하였읍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려하면 여러가지 일에 감동하여, 여러가지로 생애를 고치는수가 있는것이라, 내가 리스본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배로 가는것도 무망하나, 그러나 아무대서는 해적을 만났고, 아무대서는 과친을 당하여, 상서로운 일은 별로 없었으니, 구태여 배로 갈것 없다 하여, 이 사유를 노

신장에게 토와하고 상의한즉 그도 또한 수로가 좋을것이 없다 하고, 육로로 가기를 원하므로, 그만 어떻게 마음을 먹어 육로로 스페인국으로부터 프랑쓰국을 지나 갈라이쓰항구로 가기로 하였읍니다.

마침 출발하려하는 날 노신장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소개하되

「이 사람은 귀국 상인의 아들로 귀국하는 길이니, 작반하여 가시오. 마침 좋은 동행이 있기로 나도 또한 대단히 좋으니」
하므로, 나도 마음의 매우 좋아 즉시 허락하였읍니다.

그리하고 그날 오후에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포르도갈국 사람들과 금요일이와 밋다른 하인 하나로 더부러 우리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였읍니다.

우리 일행은 다 말을 타고 각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적

은 군대와 같은데, 그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고도 이 소대의 대장이 되었읍니다.

마드리드(스페인국 서울)까지 와서 얼마동안 거기 두류하여, 풍속도 살펴보고 명승도 보는데, 스페인국에는 처음 온고도, 우수한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기괴하게 보이는 일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갈질이 바쁜고로, 시월 중순에 마드리드를 떠나 나빠리 국경에 이른즉, 월경 프랑쓰의 산맥에는 눈이 와서 쌓여, 여간하여서는 지나갈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산을 타고 넘으려하지 말고 다른대로 돌아가려 하더니, 이때 산으로 넘어양으로 갔던 행인들은 다 할수없다고 돌아와서 팜피나에 두류하고, 그곳 사람들도 그만 두시는편이 좋다 하므로, 우리들도 얼마동안 이곳에 두류하기로 하였읍니다. (또잇소)

青年常識叢書

朝鮮歷史	定價	二十錢
西洋歷史	定價	二十錢
世界地理	定價	二十錢
政治篇	定價	二十錢
經濟篇	定價	二十錢
法律篇	定價	二十錢
哲學概論	定價	二十錢
社會學	定價	二十錢
人體生理	定價	二十錢
家庭衛生	定價	二十錢
新體書翰文	定價	二十錢
朝鮮語文法	定價	二十錢
朝鮮語綴字法	定價	二十錢
物理學	定價	二十錢
化學	定價	二十錢
商業	定價	二十錢

朝鮮紀念圖書出版館 趣旨書

半萬載에 亘하여 朝鮮民族의 文化 燦然히 發達하여 온 것은 東方靑史에

昭然한 바이다。 그러나 今日的 現象으로 보면, 우리로서도 文化 一이렇게 沈滯해 본 時代가 없고, 남과 比하여 또한 一이같이 寂寞한 民族이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眞實한 意味의 文化的 再發芽, 再發奮이 있어야 할 것은 唇舌을 費할 것도 없을 줄 안다。 世世에 그 威光을 자랑하던 우리의 古文化도 이에 臨하여 闡明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代에 그 存榮을 가치할 우리의 新文化도 이에 際하여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文化的 參與 關心과 그 發展에 對한 協同的 努力이 필경 하나 하나의 結實을 지을 때, 그 結實이야말로 그대로 우리의 法乳며 靈泉이며 또 그대로 生命素가

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貧寒한 지라, 學者 一이 있으되 一 卷書를 짓지 못하고, 또한 그우에 一人의 熱心한 出版家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시 商量하던 때 우리는 決코 一 卷書를 出版 못하도록 貧寒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熱誠의 缺한바라 봄이 可할 것이니, 餘他諸事는 姑畧하고 우선 吉凶一事가 있을 적마다 혹은 虛禮를 盲從하고, 혹은 歡樂에 耽溺하여 無意無功하게 자취없이 消費하는 金額이 그얼마만한 巨額에 達할 것이라。 우리는 이에 文化發展의 第一步的 計劃으로 吉凶間 大事가 있는 이로는 그날의 費用을 節約하고, 그 힘의 一部를 던져서, 各自의 愛好를 따라, 如何한 方面, 誰某의 著述이든지 一 卷의 書籍을 公刊함으로써, 먼저는 各自의 吉凶大事를 가장 有義有効하게 永遠히 紀念하고 다음으로는 그대로 곧 朝鮮 文化發展에 寄與함이 되게 한다면,

이는 진실로 거룩한 事業의 하나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는 「朝鮮紀念圖書出版館」이란 純粹한 利族的 機關을 創立하고, 이 方法의 出版을 宜揚鼓吹하며, 同時에 中立紹介하는 것으로써 本領을 삼는 것이다。

과연 이 事業의 民族的 支持로 因하여 한개의 民風이 쇠고, 또한 그대도 우리 文化의 滾滾한 長流가 되 어진다면, 그 香薰이 寰宇에 차고, 그 餘德에 後裔에 미치어 우리는 永遠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보라! 草芥와 같이 微弱하고 短命한 것은 個人的 榮祿이로되, 天地로 터부러 莊嚴하고 久遠한 것은 民族의 文化인 것을 窺이 깨달아, 이에 우리는 一 無窮한 盛事를 爲하여 大願力을 세우고, 大顯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同胞여! 願컨대 이 뜻을 三思하라。 共鳴하라。 그리하여 이 일에 協助함이 있으라。

昭和十年三月十五日

發起人 (가나다順)

朝鮮紀念圖書出版規定

權相老 金美理士 金性洙
金活蘭 朴興植 方應謨
宋鎮禹 安在鴻 梁柱三
呂運亨 俞珪卿 俞億兼
俞鎮泰 李克魯 李容萬
李允宰 李殷相 李仁
李鍾麟 鄭世權 鄭仁果
曹晚植 趙信聖 朱耀翰

第一條 本館은 朝鮮紀念圖書出版館이라

일컬음

第二條 本館은 朝鮮文化 向上을 爲하

야 有志의 紀念圖書 出版事業을

助成하기로 目的하고, 左記事業을

行함

(가) 婚姻、壽宴、爲先、葬禮、祭祀、

子女生産、落成、開業、成功 其他를

紀念하며는 有志에게 圖書를 紹介

하야 出版하게 함

(나) 紀念出版物은 文化機關 其他에

寄贈함

(다) 相當 圖書의 刊行 及 附帶事業

第三條 本館의 事務所는 京城에 둠

第四條 本館은 左記 任員을 둠

一、館長 一人

一、理事 若干人

一、監事 若干人

一、評議員 若干人

第五條 評議員은 總會에서 選任하고,

任期는 三年으로 함

第六條 館長 理事 監事는 評議員會에

서 選任하고, 任期는 館長 理事

는 四年, 監事는 三年으로 함

第七條 理事는 理事長 一人을 互選하

며, 館長과 理事長은 互相 兼任

할수 있음

第八條 理事는 常務理事를 互選하고,

常務 理事는 그 決議에 依하야

總務 出版 財務 庶務 其他 必

要事務外 館長의 指定의 事務를

分掌 또는 兼務함

第九條 館長은 館務를 統轄 代表하며,

理事長은 館長을 補佐하고, 館長

이 有故할 때는 館長을 代理함

第十條 評議員會는 豫算 決算 其他重

要事項을 議決함

第十一條 評議員會는 出版著作을 評定할

各部門의 評定士 若干人을 推薦

하야 館長이 이를 囑託하며, 館

長은 評議員會의 意見을 徵한後

에 囑託을 解除할수 있음

第十二條 監事는 本館의 財産 及 業務

執行狀況을 監査하야 定期總會에

報告하며, 緊急報告를 認할 때는

總會를 召集하며, 評議員會에 列

席하야 意見陳述을 할수 있음

第十三條 定期總會는 每年 二月中旬, 臨

時總會는 必要로 認할 때에, 또는

評議員 三分之二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 館長이 이를 召集함

第十四條 評議員은 評議長 一人을 互選

하며 評議員會는 館長이 이를 召

集하되, 館長이 召集하지 아니할

때는 評議長이 이를 召集함

第十五條 總會 及 評議員會는 그 全員

의 五分之四 以上の 決議에 依

하야 評議員 理事 監事의 改任

을 할수 있음

第十六條 本館의 各 決議 方法은 一般

慣例에 依함

細則

一、紀念事業을 爲하야 내는 金額은 一

種의 刊行에 對하야 金壹百圓(出版費

發送費) 以上으로 함

- 二、書籍의 出版은 一人이 一種으로 合力하여 原則으로 하되、數人이 合力하여 一種을 出版할 수도 있음
- 三、出版費中에서 該 出版物의 市場 定價의 一割을 著者에게 稿料로 주고 評定을 받는 것에 限하여는 그 稿料 中 四分의 一에 該當한 金額을 評定士에게 주고、또 따루 四分의 一을 出版箱에 公置한 후 그 殘額으로 刊行實費에 充當하게 함
- 四、出版은 五百部以上 一千部까지로 하야、그중에서 最高限度 二百部는 紀

한글운동에 대한 계획

창립과 그 계획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 것이 이케만 이 개년이 되리라.

그 사이에 각방면에서 이를 실행하기에 힘쓰므로、온갖 인쇄물이 모두 이 통일안을 좇아 조수밀듯 나날이 발전하여、이러한 단시일에 많은 성과를 보이었다。그러하건마는、아직 이것도 부족하게 아는 유지 케씨로서 통일안을 골고루 보급시킬 목적으로 한글통일안보급회(한글統一案

- 五、出版物은 初版에만 限하여 本館에서 權利를 有하며、반듯이 그 出版物의 紙型을 떠서 著者에 寄與하되 再版 費를 加算함
- 六、紀念事業家가 所要部數 以上을 要求할 때에는 그 要求에 依하여 出版費를 加算함
- 七、紀念事業家가 所要部數 以上을 要求할 때에는 그 要求에 依하여 出版費를 加算함
- 八、本館의 推薦을 받고져 하는 著作이 있는 사람은 미리 그 書名、內容、分量等을 記入한 申請書를 本館에 提出함을 要함 以上

조선어학회

소식

普及會)를 발기하여、사무소는 경성부 의주동(義州通) 일청목 일백 삼십 구번지에 두고、통일안을 찬성하며 실행할 이를 모으는데、발서 몇 날이 못되어 천여명의 찬성자를 얻었으며、또 해회에서 첫 계획으로 위선 매수교 성경(신약전서)을 통일안 철자로 개정 인쇄하기로 준비중인데、신약전서 일만부를 곧 인쇄하여 누구든지 신철자법으로 된 성경책을 요구하는이에게 팔기로 하며、책 값도 특별히 차게하여 봉사적으로 제공할 터인데、이것을 청구할 이는 미리 해외 사무소로 통지하기를 바란다 한다。

- 六、出版物 첫머리에는 반듯이 紀念事業家의 肖像、筆蹟、略歷 其他 一般에 對한 參考 事項을 紹介하야 永遠히 紀念이 되게 함
- 七、出版物에는 반듯이 本館 推薦의 印을 찍고、番號를 記入함
- 八、本館의 推薦을 받고져 하는 著作이 있는 사람은 미리 그 書名、內容、分量等을 記入한 申請書를 本館에 提出함을 要함 以上

김천기(金善琪)씨 본회에서 과송한 해외연구생 김천기씨는 프랑스국 과 리대학에 재학중이던바、지난 팔월 하순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성음학회(國際聲音學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런던에 갔었다。

이운재씨 팔월 이십일일부터 부산(釜山)에서 열린 면려청년회(勉勵靑年會) 경남 연합대회 수양회에 한글 강사로 갔었다。

崔鉉培氏著 **중등 조선 말본** 畝八十錢
 崔鉉培氏著 **우 리 말 본** 畝九十錢
 金科奉氏著 **김 더 조선 말본** 畝二圓半錢
 申明均氏著 **한글 歷代文選** 畝一圓
 申明均氏著 **周時經先生遺稿** 畝一圓
 中央印書館 **訓民正音原本** 畝二十錢
 朝鮮語學會 **한글마춤법동일안** 畝二十錢
 權憲奎氏著 **朝鮮語文經緯** 畝一圓
 張志暎氏著 **朝鮮語綴字法講座** 畝一圓
 金克培氏著 **한글鐵筆書自習書** 畝五十五錢
 宋完植氏著 **最新日鮮大字典** 畝一圓半錢

社告

正文龍飛御天歌는 여러가지
 事情으로 지금까지發行하지 못하여 미안한것은
 이두 말할수 없습니다。年
 內로發行하려 하오니 諒
 하시옵소서。

한글 支社

鎮南浦 三和町 姜 焄
 光州邑 崔奇一
 東京市 品川區 大井水神町 姜鎬哲
 二〇七九 朴周陽
 載寧邑 日新里 李明克
 鐵山邑 東平洞 劉天德
 義州邑 鄉校洞 朴潤元
 平北 七坪市 金成煥
 尙州邑 金永斗
 統營邑 鄭德寶
 高敞邑 陳春海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社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
 置하고져 하시는분은 한번書
 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
 니다。

朝鮮語學會

價 定	
一個月 七錢	代金은
三個月 二十錢	반듯이
六個月 四十錢	선금을
一年 七十五錢	要함。

料告廣	
表紙 表面 二十圓	詳細는
全 裏面 十五圓	相議를
普通頁 十圓	要함。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京城府 花洞 一二九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 花洞 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 京城一〇〇四四番

한글 統一案 贊成員 募集

現今 各種 出版物이 一齊히 한글 綴字法을 쓰에 不拘하고 오직 聖經만이 舊式 綴字法대로 써서、一般 靑年이나 學生에게 不便을 움이 많음을 切感하였나이다。

本會는 한글 統一案의 普及을 促進하게 할 뜻으로 우선 新約全書 한권을 統一案에 의지한 綴字로 改正 印刷하여 實費로 一般에게 提 供하기로 하나이다。

누구시든지 이 뜻을 贊成하시는 이는 葉書에 姓名과 住所를 쓰시고 「贊成」이라고 적어서、左記場所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一三九

한글 統一案 普及會 白